



# 德川實紀(「御實紀」)의 편찬에 대하여

藤實久美子

翻訳 金孝宣

## 1. 머리말

이번의 '歷史編纂의 比較史'는 지금까지 日本近世史料學연구에서 논의될 기회가 적었던 편찬서를 대상으로, 史料學의 영역을 넓힌 연구회로서 극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역사편찬을 비교하려는 문제관심은 자칫하면 一國史觀적 발상에 빠지기 쉬운 경향이 있다. 연구의 세분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상황에 새로운 자극을 주는, 극히 중요한 관심이라고 필자는 받아들인다.

이상과 같은 연구회추진의 기획의도에 따라, 본 발표에서는 같이 中國歷史書의 영향을 받은 한일양국의 歷史編纂이, 어떤 식으로 중국의 양식과는 다른 자국독자의 세계를 형성했는가에 대해 생각해보고 싶다. 구체적으로 武人政權인 江戸幕府의 편찬역사서 중, 중국의「實錄」과 日本古代 天皇勅撰의「六國史」에서 그 편찬의 규범을 정한「德川實紀」(以下 당시의 호칭인「御實紀」로 적음)를 대상으로 하여, 史料學적인 관점에서, 그 편집과정에 중점을 두어 발표하려고 한다. 「御實紀」편찬계획이 시작된 것은 11代德川將軍家齊(在位1787~1837)의 시대이다.

## 2. 「御實紀」編纂의 建議

寬政期이후(1789~), 幕府가 주도하는 대규모적인 편찬사업이 시작되었다. 歷史분야에서는,

예를 들면 「御實紀」 「朝野舊聞褒稿」 「史料」가 편찬되었다. 家譜・傳記류로는 「寬政重修諸家譜」가, 地誌류로는 「新編武藏國風土記稿」 「新編相模國風土記稿」가 그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寬政期이후, 幕府주도의 대규모적인 편찬사업이 행해진 이유는, 크게 잡아 첫 번째, 이 시기 幕府가 대외적 위기에 직면하여, 將軍의 권위를 상징하는 家格制나 儀禮의 질서의 재편을 꾀해, 국가의 편성통합을 강화해야만 하는 단계에 있었던 점, 두 번째로 지도력을 결비한 松平定信가 老中이 되어, 그의 의도가 편찬사업에 강하게 작용했던 점을 들 수 있겠다. 定信의 자서전인 「宇下人信」의 寬政3年(1791)條에는, 이미 「御實錄」 「風土記」의 편찬・孝子忠臣에 관한 이야기를 모은 書物, 萬石이상의 「系圖」의 편집기획을 上申하고 있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定信은 寬政5년에 실각, 결국 定信의 구상이 실현되는 데에는, 幕府의 儒學者林述齋 및 定信의 노선을 계승한 老中松平信明의 건의가 있기까지, 어느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다.

寬政11年(1799), 述齋는 德川家 事蹟의 조사・정리를 위한 기록수집을 幕府상층부에 요청, 이를 허락받았다. 이후 史料수집이 행해져, 상당량이 모여진 享和元年(1801) 사업의 방향성이 대체로 정해졌다.

享和元年의 시점에서 述齋가 제시한 방향성이란, 첫째 慶長8年(1603)의 家康의 將軍宣下를 編纂物의 마지막부분으로 한다는 점, 둘째로 2代將軍秀忠이후는 將軍별로 「實錄」을 편찬해 나간다는 점이었다. 다소의 변경은 있었지만, 前者는 「朝野舊聞褒稿」로서, 後者는 「御實紀」로서 결실을 맺었다.

### 3. 「御實紀」의 編修方針

享和元年, 「御實紀」 편집의 방향성은 정해졌으나, 述齊는 바른 일정으로 「御實紀」 편찬에 전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 때문에 文化6년(1809)2월12일 述齊는 若年寄에 편수주임으로써 奥儒者 成島司直을 추천했다. 司直을 추천한 이유는 그 작업능력이 뛰어난 점, 더욱이 이전 紅葉山文庫의 目錄改正에서는 述齊의 보좌역을 맡은 적도 있었기에, 司直이 述齊의 의향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述齊의 제안은 받아들여져, 文化6년2월8일, 若年寄堀田正敦으로부터 司直에게 述齊와 같이 「御當家御實錄取調」에 종사하라는 명이 내려졌다.

3월9일 林述齊·成島司直은 연명으로, 堀田正敦에 伺書を 제출했다. 그 내용은 이하와 같다.

- (1) 書名은 「御實紀」로 하고 싶다. 「實錄」은 天子·天皇에게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2) 편집은 최근의 시기부터 시작하여, 점점 거슬러 올라가는 식으로 하고 싶다.
- (3) 본편은 「實錄」의 서법에 기초하여, 편년체를 이용한다.
- (4) 用字는 平仮名文(漢字·仮名の 혼합문)으로 한다.
- (5) 年月이 확실치 않은 사항은 附錄으로 한다. 아울러 오래된 시기의 附錄에는 「考異」를 붙이고 싶다.

(6) 편찬장소는 成島司直의 役宅으로 하고, 임시직원의 출근을 요청한다.

(7) 초고가 완성되면, 述齊가 一覽하고, 司直과 상담하여 본문을 확정, 中清書を 만든다. 이상은 伺書단계의 방침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어떤 식으로 편찬이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2)는 後掲의 校閲年에서 편찬이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1)(3)(4)(5)는 「御實紀」의 완성본을 보면, 거의 방침대로 작성된 것이 확인된다. (6)은 東京大學史料編纂所所藏의

「御實紀」에서 확인가능하고, 또한 그 완성 뒤, 25인에게 포상이 내려진 사실에서 임시직원의 충당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번에는 「御實紀」의 편찬방침을 살펴보자. 우선 범례(「御實紀成書例」)의 체일조에서는, 편찬규범을 日本의 「文德實錄」, 「三代實錄」의 예를 따라 중국의 「實錄」을 따랐지만, 실제로 적용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많기 때문에. 기사의 채용에 있어서는 독자의 기준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御實紀」편집에서 정한 독자의 기준이란, 예를 들자면, 大名을 國持・城主・領主로 나누고, 그외는 四品以上・萬石以上・布衣以上・御目見以上の 넷으로 나누는 점, 또 萬石以上은 家督을 讓渡한 날에 그 事蹟을 약술하고, 布衣以上은 役職의 交替・褒賞을 적고, 御目見以上은 初目見의 記事・養老(70歲以上까지 재직한 이에의 褒賞)를 기록한 점등이다. 이러한 기준은 그 서적의 기술을 극히 객관적으로 한다.

이외에도 여러 기준이 있다. 大事를 취해 小事는 버린다, 단 사소한 일이라도 大政의 得失에 관한 것은 빠지 말고 기록한다, 將軍의 善行嘉言 또는 백성에게 전해 후일의 모범으로 할 만한 사항은 부록에 실는다. 이와 같은 애매한 기준은 編者의 主觀이 크게 작용한 결과라고 추측된다. 「御實紀」의 기술에 전체적으로 將軍을 칭송하는 경향이 강한 점은 부정할 수 없다.

#### 4.史料蒐集

「引用書目」에는 744部가 게재되어 있으나. 그 분석은 이후의 과제로 하고 여기서는 다음의 세 점을 지적하고 싶다.

첫째, 位記宜旨・外國國書는 열람불가능이었다. 이는 紅葉山文庫에서도 이 書物들은 貴重書

로 분류되었을 뿐 아니라 老中이 상자를 봉인한 까닭에 쉽게 개봉할 수 없는 성격을 띠고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로, 目付가 보관하는 「諸系譜」류는, 林述齋가 目付와 교섭하여 그 대출이 실현되었다.

셋째, 寛永8・9년(1631・1632) 이후는 表右筆所日記를 중심사료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表右筆所日記의 抜抄는 江戸城内의 表右筆詰所の 2층에서 행해졌다고 한다.

이외의 상세한 점은 확실치 않지만, 幕府의 儒學者 林家가 대대로 수집해온 장서와, 아울러 述齋가 수집한 기록류가 참고되었다고 한다.

## 5. 「御實紀」의 완성

天保13년(1842)11월에 「御實紀」는 완성되었다. 그 구성과 校閱(述齋의 校閱?)이 끝난 시기는 다음과 같다.

家	書名	卷數	校閱年
家康	「東照宮御實紀」	10券 付録25券	天保10년~11년
秀忠	「臺德院御實紀」	60券 付録5券	天保6년~12년
家光	「大院御實紀」	80券 付録6券	文政8년~天保4년
家綱	「嚴有院御實紀」	60券 付録2券	文政5년~7년
綱吉	「常憲院御實紀」	59券 付録3券	文政2년~4년
家宣	「文昭院御實紀」	15券 付録2券	文政8년(付録)

家繼	「有章院御實紀」	15券 付録1券	文政8年
吉宗	「有徳院御實紀」	62券 付録20券	天保5年
家重	「惇信院御實紀」	31券 付録1券	?
家治	「浚明院御實紀」	55券 付録3券	?

天保14년(1843)12월, 「御實紀」 편찬에 관여한 林述齊・復齊(述齊의 4男) 등 25인에게 포상이 내려졌다. 또 다음해인 弘化元年2월에는 成島良讓(司直의 繼嗣)의 1인에 포상이 내려졌다. 참고삼아 언급하면, 이 시기의 將軍은 12代 家慶(재직 1837~1853)이다.

그러나 將軍에게의 헌상본(凡書에서는 「本書」)에는 인용서명이 붙여있지 않았다.

한편, 「副本」에는 기사의 마지막부분에 그 인용서명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 「副本」은 처음에는 將軍에게 헌상되지 않았으나, 그후 정서해서 將軍에게 바치라는 명이 내려졌다. 嘉永2년11월26일에는 林復齊・成島良讓등은 「副本」 헌상의 공로로 포상을 받았다.

嘉永2년에 「副本」을 작성시킨 연유는 확실치 않으나, 이를 전후하여 이전의 헌상본이 紅葉山文庫内に 소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장군은 「副本」을 가까이에 두고 이용했다고 생각된다.

## 6. 傳本

현존하는 傳本の 일부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稿本)

「本書」

③成島一徳川家一徳川林政史

①將軍〈天保13〉—紅葉山〈嘉永2〉—内閣文庫

②日光東照宮〈安政4〉

靜嘉堂文庫(未見)

②轉寫本(東代史料)

「副本」

④學問所〈天保13?〉—……書籍館〈明治5〉—内閣文庫

⑤徳川將軍家〈嘉永〉—貴族院圖書館

이어서, 傳本の 書誌와 그 전래과정을 살펴보자.

①은 將軍에의 헌상본으로, 舊紅葉山文庫. 현재는 内閣文庫소장으로 귀중서급의 서적이다.

冊數는 485冊이 현존(31冊은 明治期이후 없어졌다.)

書式은 舊版의 國史大系本(1929년초판, 1940년2쇄)의 口會(권두그림)參照가 참고가능하며, 藏書印의 「淺草文庫」는 昌平坂學問所本가 書籍館에 소장된 이후에 찍혀진 것이다. 여기서 紅葉山文庫本중에서도 「御實紀」가 明治期이후에 書籍館에 들어간 이유를 고려해 볼 필요가 생긴다.

②는 日光東照宮에의 헌상본이다.

書誌: 表紙는 황색으로 卍繁文. 綴穴5穴朝鮮裝, 料紙는 얇은 美濃紙. 오동나무상자에 넣어, 그위에 또 長持(장방형의 두경있는 상자)에 보관했다.

③은 稿本으로, 현재 徳川林政史研究所寄託(舊版國史大系本の 口會參照). 이 口會사진에서 주목할 할 점은, 첫째 인용서의 기사의 형식이다. ④과 달리, 오른쪽 윗부분에 적혀있다. 둘째 成島司直의 筆로 校閱일자가 기입되어 있는 점이다. 이는 同書가 최종단계의 稿本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④는 副本系統의 書籍으로 현재 內閣文庫에 소장되어 있다.

書誌; 後表紙는 花田色無地. 題簽「東照宮御實紀 五六七」. 綴穴4穴.  
元表紙는 共紙로, 後表紙의 面紙에 풀로 붙여 있다. 表題는「東照宮御實紀 卷之七」  
與書는 없다.

크기 260 x 180mm 料紙는 楮紙

藏書印淺草文庫・書籍館印・日本政府圖書・內閣文庫

藏書印(書籍館・淺草文庫)에서 舊學問本이라고 추측된다.

⑤는 현상본(「副本」). 德川將軍家に 전래되어, 德川家連代에 貴族院圖書館에 소장되었으  
나. 大政12년 關東大地震으로 소실되었다.

(34)

이상 傳本을 소개했다. 이를 근거로 하여, 傳本을 성립시기순으로 열거하여 그 관계를 언급  
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③의 稿本이 완성되어 司直이 校閱終了의 글을 적었다. 그후 「出役」은 정서본의 작성  
에 착수했는데, 이때에는 오른쪽 윗부분의 인용서명을 삭제하고 본문만을 정서했다. 天保13  
년에 현상본①을 완성했다. 아울러 인용서명을 붙인 副本④의 정서본도 작성되었다.

그후 현상본①는 嘉永2에 紅葉山文庫에 소장되었다. 이와 시기를 전후하여 인용서명을 붙인  
副本의 정서본이 장군에 헌상되었다. ⑤는 紅葉山文庫에 들어가지 않고 將軍의 개인소유이 되  
어 德川宗家に 대대로 전해져, 明治期에 貴族院圖書館소장이 되었다.

③의 稿本은 成島家 혹은 「御實紀」 속편을 편집한 昌平坂學問所내의 「御實紀調所」에 전해  
졌다. 明治維新이후에는 「御實紀」 속편의 사업을 계승한 駿府의 「御事續調役」에 전해져, 德  
川宗家の 손에 되돌아갔다.

③과 ①·⑤의 본문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國史大系本の 傍註를 보아도 분명하다. 稿本인 ③은 그렇다 하더라도, ①·⑤의 차이는 將軍에게 헌상한 뒤, 다시 본문을 수정했다는 중요한 사실을 의미하고 있다.

또한 이후의 과제로서, 靜嘉堂文庫소장의 稿本을 비롯해, 內閣文庫·國立國會圖書館·東京國立博物館·蓬左文庫·(寬永寺)등에 있는 諸本을 조사하여 비교검토하는 작업이 남아있다.

## 7. 맺음말

### a 朝鮮王朝實錄과의 공통점

1 一代별로 나누어, 각각 諡號를 書名으로 이용했다. 단, 家康은 예외.

2 編年體

### b 朝鮮王朝實錄과의 차이점

1 편찬의 계기

2 편찬체제(校閱체제를 포함하여)

3 편집방침

· 漢字·假名の 혼합문을 채용한 의미에 대해서는, 한자문화권인 동아시아세계의 공용어는 한자인 점, 또한 이를 의식하여 「寬永諸家系圖傳」(日光寺. 寬永20년완성)이나 「本朝通鑑」(寬文10년 <1760> 완성)도 한문체였던 점을 감안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御實紀」에서 成島司直가 덧붙인 문장이나 요약에 조각이 있었던 점은 이미 지적되어 왔다. 漢字·假名の 혼합문으로 원래 史料의 淸朗さが 변화되어 있는 부분으로부터, 편집의 지침을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同時기에 편찬된 「朝野舊聞褒稿」에서는, 綱文에 그 근거가 되는 史料를 병기하고 있듯이, 시대적 특징으로부터 「御實紀」는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 4 보존장소와 이용

紅葉山文庫나 將軍의 소유문고는 그 이용에 제한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참고도서관적인 요소를 갖고 있었다.

#### 5 寫本으로서 전래

近世初期에 幕府가 인쇄출판사업을 방기한 사실에 연유한다고 생각한다.

「御實紀」는 幕府의 편찬물중에서도, 특히 기념물적인 성격이 강한 서적으로, 그 기사의 신뢰성에 의문이 있다. 이 때문에 연구자중에서는 그 史料의 引用을 꺼려하는 이도 있다. 그 한편 編年體로 장군의 동정, 막부의 시정이나 행사를 기술하고 있어, 사용하기 편하다는 점에서 활자본을 그대로 쓰는 연구자도 있다.

「御實紀」의 연구를 현수준에서 멈추는 일없이 그 諸本을 사료학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각각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가는 작업이 필요불가결이라고 생각된다.

